



김병조의 마음공부  
김병조 지음

**명심보감 강의 책으로 펴내**

“지구를 떠나거나” “먼저 인간이 되어라” 등 유행어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맨 김병조가 명심보감 강의를 책으로 펴냈다. 이번에 발간한 ‘김병조의 마음공부’는 유불선 핵심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청주판 명심보감 완역으로 독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

물질만능이 무한 경쟁이 낳은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은 인성교육이다. 청주판 명심보감 서문은 “이 책을 통해 마음을 맑고 바르게 하여 인성을 순화시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후세에 도래도록 전할 수 있다면 어찌 작은 일이었겠는가”라고 언급돼 있다.

선현들의 바람처럼 저자 김병조는 청주판 명심보감 완역본이 위정자들에게는 회초리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마음의 단비가 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한다.

〈정어람 M&B·각권 2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만물의 공식  
루크 도멜 지음

**알고리즘이 삶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관계, 미래, 사랑까지 수량화하는 알고리즘의 세계. 알고리즘은 컴퓨터에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일련의 명령을 뜻한다.

알고리즘은 우리 주변 곳곳에 파고들어 있다. 인터넷 검색뿐 아니라 오락, 연예, 결혼, 이혼, 법률을 비롯해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알고리즘과 얽혀 있다. 문제는 알고리즘이 미치는 영향력이 무척이나 광대하다는 것이다.

클리프리스트이자 영화 제작자인 저자 루크 도멜이 ‘만물의 공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알고리즘으로 풀어냈다. 알고리즘의 시대가 인간의 창조성, 인간관계, 정체성 개념, 법률문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의 흥미진진한 사례를 들려준다.

〈반니·1만7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세상은 무대고 인간은 누구나 배우”  
철학으로 바라본 20가지 인생여정**

**이토록 철학적인 순간**

로버트 롤런드 스미스 지음



‘태어남, 걸음마와 웅얼이, 학교, 자전거, 시험, 첫키스, 순결의 상실, 운전면허, 첫투표, 취직...’

열거한 10개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어가 배열될수록 뭔가 집히는 게 있다. 그렇다. ‘인생’이다. 기술된 단어들은 대체로 이십대까지 인생 여정을 압축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웅얼이를 하고 걸음마를 시작한다. 취학

자전거타기에서 첫키스

학교에서 이사까지

누구나 거치는 통과리례

해석하기 따라 삶의 의미 달라

연령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후 두발자전거를 탄다.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고 점차 사랑에 눈을 뜬다. 그리고 졸업을 해서는 어렵사리 취직을 한다.

모든 사람이 거치는 인생의 20가지 통과리례를 다른 책이 나왔다. 철학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영국의 로버트 롤런드 스미스가 펴낸 ‘이토록 철학적인 순간’은 개개인의 운명은 다르나 누구나 거치는 인생의 경로를 담고 있다.

위에 기술된 인생 경로의 다음 단계를 살펴보자. ‘사랑, 결혼, 출산, 이사, 중년의 위기, 이혼, 은퇴, 늙어감, 죽음, 내세’. 어렵게 취직을 하고 나면 마침내 사랑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아톰바통 살다 어느덧 중년에 다다른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

이렇듯 누구든 동일한 경로를 거치는 게 인생이다. 그러나 이 신비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천차만별이다. 사실 이 평범한 생의 궤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왜 20가지 통과리례일까? 아마도 우리 삶과 가장 가깝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경험들을 다루기 때문인 듯하다.

일반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면 정치, 사회, 문화 같은 목적인 단어들만 연상된다. 그러나 사실 철학은 우리들 곁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 책 제목이 말해주듯 ‘이토록 철학적인 순간’은 일상의 친숙한 주제들을 다룬다.

저자는 이처럼 일상적인 경험을 토대로 ‘철학’을 프리하게 본다. 아니 철학적인 의미를 숙고한다. 아닌 게 아니라 늘 접

하는 일들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일쑤다. 온전히 몰입하지 않고는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이 앞서 거론한 이정표들을 모두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겪는 순서가 다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겪지 않기도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인생이라는 풍경을 철학자와 드라이버하는 것에 비유한다는 사실이다. 일테면 이렇다. 조수석에는 플라톤이 앉았고, 뒷좌석에는 데리다, 사르트르, 니체, 하이데거, 아렌트와 같은 철학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를 풀어내는 저자의 시선은 사뭇 비유적이고 철학적이다. 그는 각 학교에 입학한 꼬마의 모습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 국민을 연상한다. 철학자 알튀세의 시선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대목이다. 직업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취업준비생이나 실수투성이인 신입사원을 ‘아니말 라보란스(일하는 동물)’에서

‘호모 파베르(물건을 만드는 인간)’으로 재평가하기도 한다.

이렇듯 저자는 우리 삶과 밀접한 경험들을 철학적으로 풀어낸다. 기발하면서도 신선한 접근은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준다.

그럼에도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희곡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저자 또한 다음의 구절에서 뭔가 다른 ‘철학적인 순간’을 해석할 지 모를 일이다.

“온 세상이 무대이고 누구나 배우일 뿐이죠. 등장이 있으면 퇴장이 있고 각자 살아가며 여러 가지 배역을 맡죠. 연극은 일곱 막, 처음에는 아기로 시작해요... 씩씩하고 우렁찬던 목소리는 아이처럼 도로 연약해지고 휘파람처럼 작아지죠. 결국 종장은 낯설고 파란 역사가 끝나고 땅속 속에서 이도, 눈도 없고, 맛도 모르고,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웅진 지식하우스·1만3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걸음마와 웅얼이〉

〈사랑〉

〈중년의 위기〉

〈은퇴〉

〈죽음〉

**최초 서양화가 춘곡 고희동의 삶·예술세계**



춘곡 고희동  
김란기 지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춘곡 고희동(1886~1965)을 다룬 책이 나왔다. 문화유산연대 대표 김란기 씨가 펴낸 ‘춘곡 고희동’은 광복 후 한국 화단의 상징적 존재인 고희동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한다.

고희동은 구한말 유력한 역관 집에서 태어나 한성범어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운 뒤 공내부 관리로 근대화 업무에 참여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관료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그림의 세계로 인생행로를 바꾼다. 서양화 공부를 마치고 귀국해서는 일제에 맞선 조선의 범미술 단체인 중심인물로 활동한다.

책은 그의 막내딸 고계본 여사가 기억하는 고희동의 삶과 인간적 면모를 담고 있다. (고계본 여사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모친이다.) 2015년은 고희동의 서

거 50주기가 되는 해이다. 광복 후 서양화가로서뿐 아니라 문화계 발전에와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생을 바친 그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역사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의 자리매김이 아직 크게 부족하다. 인간 고희동에 대해서 더 많은 조명이 필요하다... 반세기 주기를 앞두고 더 많은 논의와 연구, 그리고 한국 미술사에서의 위상이 조명되는 데 이 책이 자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기를 기원한다.”

〈예디터출판사·1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자전거로 전국 누비며 만난 풍경, 그리고 사람...**



자전거 여행 1·2  
김훈 지음

‘칼의 노래’, ‘남한산성’의 소설가 김훈의 산문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다. 그가 1999년 가을부터 2000년 여름까지 ‘풍문’이라 이름 붙인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만난 풍경과 사람

들 이야기를 담아 펴낸 ‘자전거 여행’ 역시 그런 이들의 필독서였다. ‘자전거 기행 1·2’ 개정판이 10년만에 나왔다. 두권의 목차를 섞어 주제별로 재편집했다.

1권에는 여수 들산도 향일암과 돌무덤, 구례, 쌍계사를 거쳐 안면도, 강원도 고성, 광릉숲의 이야기를 담았다. 2권에서는 ‘망월동의 불’ 광주와 ‘지옥 속의 낙원’식명정·소쇄원·면양정을 만날 수 있다.

〈문학동네·각권 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5층 던롭침대**

**30% ▶**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   세계 최고 던롭침대 1년 한번 세일 11월 16일까지